

고등학교 교사들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조사

동남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
홍완성

ABSTRACT

A Survey on the Understanding of High School Teachers
about Physical Therapist

A Survey on the Understanding of High School Teachers
about Physical Therapist

Wan Sung Hong, M.A., R.P.T.
Dept. of Physical Therapy Dongnam Junior Health Colleg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cognize the understanding of high school teachers about physical therapist during September in 1988.

The study population was comprised of 511 high school teachers who had lived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Male teachers were 56% and the rest of them were females. In age distribution 45.4% of them belonged to the 3rd decade, in religion 36.2% of them were Christians, and in their carrier 45.8% of them were less then 5 years.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The high school teachers who knew about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is amounted to 62.6% in male and 49.8% in female. The high school teachers (41.7% in male and 38.6% in female) considered that students aptitud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keep in mind in counselling those who wished to become physical therapists.

There were difference in opinion between male and female teachers as to the counselling criteria ($p < 0.05$).

2. The high school teachers who knew that the students would be employed in sport center and health clubs after graduation amounted to 24.3% in males and in general hospital to 27.1% in femal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knowledge for their field of employment between male and female teachers ($p < 0.05$).

3. A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physical therapy, 41.3% of male and 29.8% of the female teachers responded to "satisfactory", but indicating no statistical difference both sexes.
4. As for the attitude of physical therapist, 43% of them answered that kindness and service devotion were the prerequisite for them.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teachers in concepts about attitude ($p < 0.05$).

To the social level of physical therapist, majority of the teachers thought that physical therapist belong to moderate level in social class.

5. Those who considered that the physical therapy was necessary means for treatment of trauma amounted to 73%. The reason why teachers thought that physical therapy was not necessary was that it required too long period of time for the treatment.
6. Those who knew fully the job of physical therapist amounted to 55% and the 55.9% knew that physical therapists work only at hospitals as the therapist and the rest of them misunderstood the job of physical therapist.
7. As for the academic background to be qualified as physical therapist, 76.2% of them said that graduation of Junior College was required, 12.9% graduation of Senior College and the rest of them had no ideas at all.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teachers.

Key words : physical therapist ; Understanding ; attitud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산업의 발달로 인한 산업재해 환자 및 교통사고로 인한 근육신경계 손상과 뇌 혈관 및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신체장애자가 증가(이영애, 1986)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는 많은 수의 장애자들이 있으며 1983년 보건사회부에서 발표한 장애자 추계인구는 901,800명이며(감성관, 1985), 편의상 우리나라의 장애자 인구를

대략 약100만명으로 추정(차현미, 1988)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 실정에서 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 확대실시와 더불어 의료혜택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대되어가는 가운데 Zimmerman(1960)은 환자 10.2명, Price JW(1969)는 환자 12명 그리고 Gee DA(1962)는 환자 18명에 대해 1명의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재활분야에 대한 공동작업(team work)으로

서의(성수원, 1987) 물리치료사 고유의 역할과 기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어경홍, 1986).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선진국에 있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충으로 물리치료사 양성 및 취업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측면에서의 물리치료사의 비중도 커지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이재학, 1982). 물리치료사는 보건의료 전문직으로서 포괄적인 의료기술을 제공하며 환자의 건강관리 및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세계물리치료사연맹, 1981)한다고 밝히고 있고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설정(대통령령, 1982)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 및 진단에 따라 직접 환자의 치료에 임하는 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문직의 특성에 미루어 볼 때 물리치료과를 희망하는 지망생은 특별한 사명감 내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물리치료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인식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이들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물리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물리치료직에 대한 인식 또한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되며, 실제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교사의 역할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은

진로 선택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갈등을 안고 있다. 1982년도 고교졸업자 545,598명 중 진학 희망률이 71.48%나 되지만 많은 고등학생들이 진로선택에 관하여 상의할 대상이 크게 부족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손충기, 1982).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목표의식보다는 합격에 치중하다보니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는 학과를 선택하게 되고 따라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여 중도에서 탈락 또는 휴학을 하게 되며 대학 입학 학력고사 준비를 다시 하는 학생들도 있으며 대학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해도 자기의 전공에 적성이 맞지 않아서 다른 직종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전공 계통에 취직을 했다고 해도 적응 및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신망을 잃게되고 결국 한 곳에 버티어내지 못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다(박원, 1984).

보건전문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망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전에 전공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입학할 하는 사례가 많고(이병호, 1984) 신입생 면접시 학과 선택 동기 및 장래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명료한 진로의식을 갖고 대답하는 학생은 거의 없으며 학과의 성격도 잘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일 정도(홍완성, 1986)이며 특히 물리치료과를 지망하는 대다수의 학생들도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상태에서 입학할 하는 사례가 많고(장수경, 1985) 학과의 선택시기도 전형당시로 대답한 학생이 전체의 92%나 차지(홍완성, 1986)하여 학생의 장래가 결정되어 질 수 있는 중요한 학과의 선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진로지도나 가정에서의 협의가 그리

많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대학을 재수를 위한 또는 군 집의 연기를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곳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보건 증진에 필요한 중견 물리치료사의 양성(이재학, 1986)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보건전문대학 설립취지에도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직업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한 가져야 하며 또 가치를 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직업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직업을 갖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사회적인 임무 수행으로서 직업생활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은 자신들의 장래문제이며 그 중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내용이 82.7%로 나타나(이상귀, 1985) 직업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날의 의료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Rouse, 1967),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요구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연하청, 1980). 치료란 환자를 위해 존재하며 환자는 최상의 치료를 기대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구희서, 1988).

이러한 기대를 실현 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학생이 전공에 대한 많은 지식과 훌륭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적인 기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민의 폭

발적인 의료육구의 증대에 대하여 질적인 의료혜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것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교육과정의 미흡한 상태에서 배출되는 의료적인 재활구성원의 질적인 문제(신정순, 1980)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물리치료사 양성기관의 학제는 4년 내지는 6년으로 정해 놓고(Robert, 1981)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10개교의 전문대학과 1개교의 4년제 대학이 설립되어 전문대학 2년과정이 대부분(문교부 1983)을 차지하고 있다. 이경재(1976)에 의하면 졸업 후 막상 취업현실에 부딪히면 이론과 상반되는 역할에서 갈등을 느껴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그 결과 전직, 이직 등을 초래하여 직업수명을 단축시키며 교육투자의 낭비를 가져온다고(정문숙, 1976)하였고, Maslow(1968)의 주장에 의하면 학과 선택 동기와 전공 학습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전문직에 대한 인식부재로 인하여 물리치료 교육을 받을 학생에 성공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예가 흔히 있다고 하였다(장수경, 1985). 따라서 전공 계열의 진로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방용자(1975)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전공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고 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선택에 관한 교사의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교사들의 물리치료직에 대한 인식정도는 학생들이 학과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나 전공에 대한 적응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분야 전문직에 대한 인식도 조사의

선행적인 연구는 간호직에 대한 자료는 가끔 있지만 의료기술직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으며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식논의(장수경 1985, 홍완선 1986, 어경홍 1986, 권혜정 1987)가 있었으나,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본 조사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학생의 진로지도에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의 목적

물리치료는 최근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한 분야인데 선진 외국의 경우 물리치료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 도입된 역사는 얼마되지 않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지 않아서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들의 물리치료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가 실제 학생의 진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그러한 이유로 학과의 선택에 있어서 교사의 상담에 의한 선택 그리고 학생의 적성, 능력, 잠재성 등이 경시된 학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학생단독으로 결정하는 폐단이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 중 대부분은 고등학교 교사나 학생들에게 대체로 잘 인식되어 있어 현실과 이상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있지만 보건계열 특수과인 물리치료과는 잘 알려져 있지 못하여 학생들의 학과 선택동기 또한 불분명한 경우가 흔히 있으며 이는 대학에서의 낙오자를 생기게 하고 졸업 후에도 직장에서의 부적용 또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도 문제가 조래되어 사회에 석시 많은 손실을 주는 현실에서 학생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여 물리치료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가 진학상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물리치료과를 선택할 때 올바른 인식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자료 모집에 있어서 서울, 인천, 경기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2) 고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치료 인식에 대한 논문이 거의 없어서 비교 고찰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범위

질문지의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집하였다.

1988년 10월 1일부터 1988년 10월 30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인문계 남, 녀 고등학교 12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대상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정한 이유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실업계보다 높기 때문이었다.

2. 예비조사 및 본 조사

본 조사에 들어가지 전에 설문지 조사의 사전단계로 질문의 내용 어귀구성 질문형태, 질문순서 등에 있어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일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의 목적은 질문 어귀가 잘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본 조사의 진행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했다.

3. 연구의 도구(질문지 조사)

고등학교 교사들의 물리치료과에 대한 인식도가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물리치료과 인식에 관한 질문지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질문서의 내용은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 9문항, 물리치료과 인식도에 관련된 내용 6문항, 물리치료사 직무에 관련된 질문 3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물리치료의 인식,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관한 문항은 권혜정(1986)의 물리치료의 인식과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관한 문항에서 인용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에 있어서 통계적인 방법은 HANA Data Base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로 빈도수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각 반응별 결과에 따른 유의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χ^2 검증방법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 총 511명 중 연령별 분포는 표 1에서와 같이 20~29세가 45.4%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 분포는 남자교사가 56%를 차지하였으며 담당학년 분포는 1학년 담당교사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입원경험 유무에 대한 정도는 입원 경험이 없는 교사가 65%로 나타났고 교사의 교육경력 정도는 5년 미만인 교사가 45.8%였으며 교사의 직위별 분포는 평교사가 91.9%로 가장 많았다. 조사표에 파악된 대상자의 각종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1).

2. 물리치료과 인식도에 관한 사항

1) 재직 전 물리치료과에 대한 지식유무

물리치료과에 대해 알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는 총 응답자 중 56.9%로 나타났으며 남, 녀 별로는 남자가 62.2%이며 여자는 49.8%로 나타났다(표 2).

자유도(df)=3이고 $\chi^2=9.414$ 로 $\alpha=0.05$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학생에게 물리치료과를 선택하여 줄 때의 조언기준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치료과를 선택하여 줄 때의 조언기준은 학생의 적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40.2%를 차지하였고 남자교사는 41.8% 여자교사가 38%로 나타나 남녀교사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특성	실수	%	
연령	20~29세	232	45.4
	30~39세	214	41.9
	40~49세	53	10.4
	50세 이상	12	2.3
	계	511	100
성별	남	286	56
	여	225	44
계	511	100	
종교	천주교	67	13.1
	기독교	185	36.2
	불교	64	12.5
	무교	173	33.9
	기타	22	4.3
계	511	100	
결혼	기혼	317	62
	미혼	194	38
계	511	100	
결혼	기혼	317	62
	미혼	194	65
임원	유	179	35
	경험	332	65
계	511	100	

특성	실수	%	
담당 학년	1학년	197	38.6
	2학년	181	35.4
	3학년	133	26
계	511	100	
직위	교장	2	0.4
	교감	4	0.8
	주임	25	4.9
	교사	470	91.9
기타	2	2	
계	511	100	
경력	1~4년	234	45.8
	5~9년	168	32.9
	10~14년	50	9.8
	15~19년	43	8.4
	20년이상	16	3.1
계	511	100	

<표 2> 물리치료과에 대한 성별 지식유무

()는 %임

		잘 알고 있었다	대강 알았었다	잘 모르고 있었다	전혀 몰랐었다	계
성별	남자	24(8.4)	155(54.2)	78(27.3)	29(10.1)	286
	여자	18(8)	94(41.8)	77(34.2)	36(16)	225
합계		42(8.2)	249(48.7)	155(30.3)	65(12.7)	511

$\chi^2=9.414, df=3, p < 0.05$

3) 학생에게 물리치료과를 선택하여 줄 때 연령별 조인기준

교사의 연령별 학생에 대한 물리치료과를 선택하여 줄 때의 조인의 기준은 학생의 적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20대 교사들이 45.8% 30대의 교사들이 35.2% 40대 이상의 교사들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으며 연령별 교사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3> 물리치료과 선택시 성별 조인기준

4) 성별 물리치료과의 취업방향에 대한 지식상태

물리치료과의 취업방향에 대하여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보면 남자교사의 경우 스포츠 및 건강관리센타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24.3% 여자교사의 경우 종합병원으로 취업이 된다고 알고 있다가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남, 녀 교사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표 5).

()는 %임

		성 적	적 성	장 래 성	경제여건 및 학부모의 요청	사회 공헌도	취업전망	기 타	계
성 별	남 자	39 (13.8)	118 (41.8)	39 (13.8)	10 (3.6)	9 (3.2)	57 (20.2)	10 (3.6)	282
	여 자	61 (27.5)	84 (38)	26 (11.8)	5 (2.3)	2 (0.9)	38 (17.2)	5 (2.3)	221
합 계		100 (19.9)	202 (40.2)	65 (12.9)	15 (2.9)	11 (2.2)	95 (18.9)	15 (2.9)	503

$x^2=17.612, df=6, P<0.05$

<표 4> 연령별 물리치료과 선택시 조인기준

()는 %임

		성 적	적 성	장 래 성	경제여건 및 학부모의 요청	사회 공헌도	취업전망	기 타	계
연 령	20대	37 (16.3)	104 (45.8)	28 (12.3)	4 (1.8)	5 (2.2)	43 (18.9)	6 (2.6)	227
	30대	54 (25.7)	74 (35.2)	29 (13.8)	4 (1.9)	3 (1.4)	41 (19.5)	5 (2.4)	210
	40대 이상	10 (15.1)	25 (37.9)	9 (13.6)	4 (6.1)	3 (4.5)	11 (16.7)	4 (6.1)	66
합 계		101 (20.1)	203(40.4)	66 (13.1)	12 (2.4)	11 (2.2)	95 (18.9)	15 (2.9)	503

$x^2=18.268, df=12, P>0.05$

*기타 사항에는 해외진출성이 포함된 것임

<표 5> 물리치료과 취업방향에 대한 성별지식 상태

()는 %임

		종합병원	병·의원	교육기관	한의원	스포츠 및 건강관리 센터	해외취업	기 타	계
성 별	남 자	109 (24.1)	92 (20.4)	48 (10.6)	19 (4.2)	110 (24.3)	14 (3.1)	60 (13.3)	452
	여 자	96 (27.1)	95 (26.8)	46 (12.9)	12 (3.4)	74 (21)	12 (3.4)	19 (5.4)	354
합 계		205 (25.4)	187 (23.2)	94 (11.7)	31 (3.9)	184 (22.8)	26 (3.2)	79 (9.8)	806

$X^2=19.342$, $df=6$, $p<0.05$ 기타 사항에는 접골사, 지압사, 안마사가 포함된 것임.

<표 6> 물리치료에 대한 경험유무

구 분	실 수	비율(%)
예	110	21.5
아니오	401	78.5
계	511	100

<표 7> 물리치료의 경험시기

구 분	실 수	비율(%)
국민학교시절	3	2.7
중학교시절	4	3.6
고등학교시절	24	21.8
대학교시절	24	21.8
재직시절	55	50
계	110	100

5) 물리치료에 대한 경험유무 및 시기

교사들이 물리치료를 실제로 경험하여 보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표 6에서와 같이 물리치료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대답한 교사가 78.5%로 나타나 물리치료를 받아본 교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물리치료를 처음 경험하였던 110명 중 치료시기에 대한 질문에서 재직시절에 경험했다고 대답한 교사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직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교사가 가장 많았다.

6) 물리치료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물리치료를 실제로 받아 보았다고 응답

한 110명 교사들 중에서 물리치료의 치료효과에 대하여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교사가 남자의 경우 49.2%로 그리고 여자는 53.2%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자교사와 여자교사간의 의견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에 대하여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14명의 교사 중 불만족한 이유에 대하여 모두가 효과가 늦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표 8).

<표 8> 물리치료에 대한 만족도

()는 %임

		만족	보통	불만족	계
성 별	남자	26(41.3)	31(49.2)	6(9.5)	63
	여자	14(29.8)	25(53.2)	8(17)	47
합계		40(36.4)	56(50.9)	14(12.7)	110

$\chi^2 = 2.248, df=2, P > 0.05$

- 만족에 대한 실수는 매우 만족이 포함
- 불만족에 대한 실수는 매우 불만족이 포함된 것임

<표 9> 성별 이상적 물리치료사의 상

()는 %임

		친절하고 봉사하는 상	사무적이고 능률적인 상	교양과 실력 을 쌓는 상	직업인의 윤리관 투철	계
성 별	남자	115(40.3)	24(8.4)	63(22.1)	83(29.1)	285
	여자	104(46.4)	42(18.7)	27(12.1)	51(22.8)	224
합계		219(43)	66(13)	90(17.7)	134(22.3)	509

$\chi^2 = 19.919, df=3, P < 0.05, 0.01$

7) 이상적인 물리치료사의 상

교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물리치료사의 상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친절하고 봉사하는 물리치료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높게 나타나 남자교사가 40.3% 여자교사가 46.4%였으며 남·여교사간의 이상적인 물리치료사상에 대한 의견이 차이가 있었다(표 9).

<표 10> 외상에 대한 인식

구분	실수	비율(%)
필요	373	73
불필요	126	24.6
무응답	12	2.4
계	511	100

8) 물리치료에 대한 필요 정도

의상을 받았을 때 물리치료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73%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표 10), 물리치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장기적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교사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1).

3.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

1)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관한 지식유무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대답한 교사는 남자교사가 52.1%, 여자교사가 58.6%를 나타내고 있지만 남·여교사간의 전문직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없었다(표 12).

<표 11> 외상에 대한 인식

구 분	실 수	비율 %
장기적인 시일이 걸린다.	41	32.5
물리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	14	11.1
물리치료의 다른 치료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	36	28.6
기 타	35	27.8
계	126	100

<표 12>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지식유무

		예	아 니 오	계
성 별	남 자	148(52.1)	136(47.9)	284
	여 자	133(58.6)	94(41.4)	227
합 계		281(55)	23(45)	511

$\chi^2=1.886, df=1, P<0.05$

<표 13> 성별 물리치료사 직무에 대한 지식상태

()는 %임

		의사 보조자	치 료 사	운동트레이너	기 타	계
성 별	남 자	49(33.1)	83(56.1)	9(6.1)	7(4.7)	148
	여 자	47(33.1)	74(55.6)	6(4.5)	6(4.5)	133
합 계		96(34.2)	157(55.9)	15(5.3)	13(4.6)	281

$\chi^2=0.435, df=3, P<0.05$

•기타 사항은 안마사, 지압사, 접골사의 보조자가 포함된 것임

<표 14> 물리치료사 학력에 대한 지식상태

()는 %임

		고 졸	전 문 대	대 졸	보조학원	계
성 별	남 자	18(6.8)	200(75.2)	30(11.3)	18(6.8)	266
	여 자	7(3.3)	165(77.3)	32(15)	9(4.2)	213
합 계		25(5.2)	365(76.2)	62(12.9)	27(5.6)	479

$\chi^2=5.463, df=3, P>0.05$

2)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대한 지식상태

교사들의 물리치료사 직무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도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 해 주는 치료사로서 알고 있는 교사가 가장 많아서 남자는 56.1% 여자교사는 55.6%였으며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대하여 의사의 보조자로 잘못알고 있는 교사도 34.2%로 나타났다(표 13).

3) 물리치료사의 학력에 대한 지식상태

물리치료사의 학력 수준에 대하여 전문대학졸업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가장 높아서 남자가 75.2%, 여자가 77.5%로 각각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내지는 보조학원 졸업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여 교사간의 물리치료사의 학력수준에 대한 지식 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4)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수준에 대한 지식

물리치료사의 사회적인 수준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보통으로 생각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남자교사 69% 여자교사 78.8%로, 그리고 좋다가 남자는 18.8% 여자가 12.2% 순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의 사회적인 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한 이유를 보면 낮은 학력을 이유로 대답한 교사 가운데 남자교사 22.9% 여자교사 35%로 나타났으며 기타로 대답한 교사가 남자교사 65.7%, 여자교사 40%로 장래성과 낮은 보수를 들기도 했다.

<표 15> 성별 물리치료사의 사회적인 수준에 대한 지식상태

()는 %임

		좋 다	보통이다	나쁘 다	계
성 별	남 자	54(18.8)	198(69)	35(12.2)	287
	여 자	27(12.2)	175(78.8)	20(9)	222
합 계		81(15.9)	373(73.3)	55(10.8)	509

$\chi^2=5.703, df=2, P>0.05$

• 좋다는 매우 좋다, 나쁘다는 매우 나쁘다가 포함되었음

<표 16> 물리치료사에 대한 사회적인 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

()는 %임

		낮은 학력	인격과 교양 부족	기 타	계
성 별	남 자	8(22.9)	4(11.4)	23(65.7)	35
	여 자	7(35)	5(25)	8(40)	20
합 계		15(27.3)	9(16.4)	31(56.3)	55

$\chi^2=3.614 df=2, P>0.05$

• 기타는 보수가 낮다와 장래성이 없다가 포함되었음

IV. 고 찰

본 연구의 연령별 분포는 20~29세가 45.4%로 가장 높았으며 경력별로는 1~4년이 45.8%로 가장 많았고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78.7%를 차지하여 조사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물리치료사의 직무를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교사가 54.9%이었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교사는 55.9%이고 그 외는 의사의 보조사, 안마사, 지압사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로 39.5%로 나타나 있고 타조사의 경우 홍완성(1986)의 40.1% 권혜정(1987)의 45.5%로 본 조사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물리치료사의 학력을 전문대학 또는 대학으로 알고 있는 교사가 76.2%, 대졸이 12.9%로 비교적 잘 인식되어 있지만 잘 못 알고 있는 경우도 10.8%이며 타조사 권혜정(1987)의 62.6%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외상을 받았을 때 물리치료가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는 73%이었으며 권혜정(1987)의 경우도 75.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의금(1987) 등은 가벼운 타박상이나 겸좌에서의 치료방법으로는 물리요법을 해야한다고 보고 했듯이 외상환자에게는 물리치료가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외상을 입었을 때 물리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교사가 24.6%이었으며 권혜정(1987)의 75.3%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불필요의 이유로서는 장기적인 치료와 치료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여 본 조사에서와 같았으며 만족할 만한 치료의 개선을 찾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적인 물리치료 방

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리치료과 졸업 후 취업방향에 대한 교사의 지식은 의료기관이라고 대답한 교사가 49.1%로 나타났으며 단순한 골절치료나 맛사지를 하는 직업 또는 한방치료의 일부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12.3%로 나타나 홍완성(1986)의 38.3%보다는 적지만 물리치료의 인식이 부분적인 정형외과적 치료를 담당하거나 한방에 관련된 유사한 치료 분야로 생각하고 있는 교사도 있어 보다 새로운 홍보가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물리치료사의 상은 친절하고 봉사하는 물리치료사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타 조사의 경우 교양과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홍완성(1986)의 64.5%, 이연희(1980)의 55.7%, 김세란(1984)의 59.8% 김복용(1989)의 58.9%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예비적인 직업인으로서의 바른 마음자세 확립을 바라는 의도로 보여진다.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수준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 조사에서 홍완성(1986)의 경우는 71.3%로 나타났으며, 물리치료사의 수준이 나쁘다고 대답한 교사도 10.8%로 나타나 장수경(1985)의 16.8%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준을 학력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학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은 4년 이상의 학제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생에게 물리치료과를 선택해 줄 때 조언의 기준은 적성을 참조한다라고 대답한

교사가 40.4%이며 성적을 참조한다고 대답한 교사가 20.1%로 나타나 있고 장수경(1986)은 적성을 참조한다고 14.6%, 성적을 참조한다고 37.9%로 나타나 본 조사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학생들의 대입합격율을 높여서 해당학교의 명예를 중시하는 교사도 다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리치료를 받아보았다는 교사는 21.5%로 나타났고 권혜정(1987)의 81.1%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었다.

위의 연구 결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성과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교사가 물리치료사에 대한 역할을 의사의 보조자 내지는 의료유사업종에 해당하는 지압사, 침구사, 안마사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학생에게 물리치료과를 선택해 줄 때 조언의 기준은 성적을 참조한다는 비율보다는 적성을 참조하겠다고 대답한 교사가 훨씬 많다는 결과를 얻었다.

V. 결 론

1988년 9월 1일부터 1988년 9월 30일까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계 남녀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남녀 교사 511명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를 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 응답자 511명 중 남자교사 56%를 나타냈으며 연령별 교사의 분포는 20~29세의 교사가 45.4%로 가장 많았고 종교별로는 기독교의 종교를 가진 교사가 36.2%로 가장 많았으며 경력별로는 5년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45.8%, 직위별로는 평교사가 9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물리치료과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대답한 교사는 남자교사가 62.6% 여자교사가 49.8%이었으며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치료를 선택하여 줄 때 조언을 해주는 기준에 대하여 적성을 참조한다고 대답한 교사는 남자교사 41.7%, 여자교사는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교사간의 조언을 해주는 기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2. 물리치료과의 졸업 후 취업방향에 대한 교사의 지식은 남자교사인 경우 스포츠 및 건강관리센타가 24.3%, 여자교사의 경우 종합병원으로 취직한다고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방향의 지식에 대한 남녀교사간의 유의한 차가 있었다($p < 0.05$).
3. 이상적인 물리치료사 상에 대한 교사의 생각은 친절하고 봉사하는 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43%로 가장 높아 남녀교사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5$),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으로 생각한다고 73.3%로 나타났다.
4. 외상을 입었을 때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교사는 73%이었으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32.5%로 가장 높았다.
5.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대답한 교사가 55%로 나타났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사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교사가 55.9%이었고, 그

의는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6. 물리치료사의 학력 정도를 전문대졸업이라고 대답한 교사가 7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학졸업 12.8%이었으며 나머지는 잘못 인식되고 있었고 남녀 교사 간의 지식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7. 물리치료에 대한 만족도의 정도에 대해서 만족한다가 남자교사의 경우 41.3% 여자교사에서는 29.8%로 나타났지만 남녀교사간의 만족도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참 고 문 헌

- 이 영애 외 1인 : 척수장애자에 관한 실태조사, 대한재활의학회지, 제7권 1호, 1986.
- 강 성관 : 재활의학의 현재와 장래, 대한재활의학회지, 제9권 제1호, 1985.
- 차 현미 : 장애인 작업재활을 위한 궁극적 차별의 적용연구, 재활통권 제27호, 사단법인 한국재활협회 36호, 1988.
- 이 재학 : 한국물리치료사 양성 및 취업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최신의학, 제25권 8호, 1982.
- 성 수원 : 물리치료사의 업무량과 이에 관련된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어 경홍 :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와 의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제7권 제2호, 1986.
- 보건사회부 : 사회개발, 제1편, 보사부. pp. 42~43, 1968.
- 연 하청 : 보건의료자원과 진료생활권, KDI p.136, 1980.
- 구 희서 : 문제 중심의료기록에 관한 고찰,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제9권 제1호, 1988.
- 방 용자 : 간호원의 역할인식과 환자의 사행정가의 역할기대와의 관계, 카톨릭간호창간호, pp.16~27, 1975.
- 문교부 : 문교통계연보, p.310, 1983.
- 신 정순 : 의료적인 재활의 현황과 대책, 사회복지, 제66호, 1980.
- 손충기 외 :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예비연구,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1982.
- 박 원 : 고등학생들의 진학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이 상귀 : 대전보건전문대학생의 문제 실태 분석과 지도 방안 모색, 대전보건전문대학 학생지도 연구소, 창간호, 1985.
- 홍 완성 외 : 일부 물리치료과 학생의 입학동기와 물리치료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동남보건전문대학 논문집, 제4집, 1986.
- 이 병호 : 대학의 진로지도활동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4.
- 현 재경 : 대학생의 학교 생활과 직업관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학생생활연구, 창간호, 1983.
- 이재학 : 물리치료과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제7권 1호, 1986.
- 정 문숙 : 간호학생들의 전문직 이념과 직

- 업현실에 대한 인식상태에 관한 연구, 공중 보건잡지, 제13권 제2호, 1976.
- 이 경재 : 간호의 직업현실과 전문직 이념간에 상반되는 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 보건협회지, 2(3), 10, 1976.
- 이 의금 외 1인 : 족구경기 중 발생된 손상의 임상적 분석, 대한스포츠의학회지 5(1) : pp.1~6, 1, 1982.
- 장 수경 :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입학동기, 전공학습 만족 여부 및 취업/희망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제6권 제1호, 1985.
- 장 정훈 외 1인 : 전북지역의 물리치료의 현황 및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제9권 제1호, 1988.
- 권 혜정 : 대학운동선수들의 물리치료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제 8권 제1호, 1987.
- 박 정란 : 서울과 마산지역 치위생사에 관한 인식도 조사연구, 마산간호전문대학논문집, 제12호, 1988.
- 김 정순 : 간호직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 논문집, 제4호, 1984.
- 안 용팔 : 재활의학의 개요 가톨릭대학 대학원, 1988.
- 대통령령 : 제10932호,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982.10.13 개정.
- 김 순옥 : 일부 간호전문대학생 특성과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순천간호전문대학논문집, 제10호, 1984.
- 이 연희 : 일부 간호전문대학생의 입학동기 및 대학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수원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6호, 1980.
- 김 복용 : 일부 간호학생의 입학동기와 간호직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춘해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창간호, 1981.
- 김 세란 : 간호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마산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9호, 1984.
- 오 순개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태도조사연구, 조선대학교 병설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3집, pp.157~167, 1981.
- Zimmerman, J. Johnson Ew : A Survey of the Work Load in Physical therapy, Phys, Thera, 40 : 448~452, 1960.
- Price Jw : Setting Rates for Physical Therapy Service, Phys, Thera, 49 : 265~268, 1969.
- Gee DA, Hickok R.J : Developing unit Costs for Physical Therapy Modalities, Phys, Thera, 42 : 713~178, 1962.
- Rouse : Nilford Inaugural "To Whom Much has Been Given" JAMA 201, July, pp.161~171, 1967.
- Davis, Fred. Olesen, V.L. and Whitake, E : "Problems and Issue in collegioiate Nursing Education." Profession(edu) Davis F, John Wiley, New York, pp. 138~175, 1966.
- Maslow, A.H.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and ed. Princeton, N.J. : Van Nostrand, 1968.
- W.C.P.T : Principles and Guidance for Initiating the Training of Physical Therapist, pp.12~28, 1981.
- Robert Shestack : Physical Therapy Springer Publishing Co, New York.

부 록(설문지)

인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물리치료과에 대한 인식도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바쁘고 불편하신 중에도 본 연구에 참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선생님들의 물리치료과에 대한 인식도가 학생의 진학 상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선생님들의 고견은 물리치료 인식향상에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협조하여 주신 호의에 감사드리며 번거로움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988. 9.

연구자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보건학전공

홍 완 성

* 다음 해당() 속에 표 또는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일반적인 특성

1. 연 령 : 만()세
2. 성 별 : 1) 남() 2) 여()
3. 종 교 : 1) 천주교() 2) 기독교() 3) 불교()
4) 무 교() 5) 기 타()
4. 결혼상태 : 1) 기 혼() 2) 미 혼()
5. 입원경험 : 1) 유() 2) 무()
6. 담당학년 :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7. 직 위 : ()
8. 교육경력 : 1) 1~4 년 ()
 2) 5~9 년 ()
 3) 10~14년 ()
 4) 15~19년 ()
 5) 20년 이상 ()
9. 전 공 : ()

II. 물리치료과 인식도에 관한 사항

1. 재직적 물리치료과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까?
- 1) 잘 알고 있었다. ()
 2) 대강 알고 있었다. ()
 3) 잘 모르고 있었다. ()
 4) 전혀 모르고 있었다. ()
2. 학생에게 물리치료과를 선택하여 줄 때 조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가지를 참조 하시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만 ●표 하십시오)
- 1) 학생의 성적을 주로 참조한다. ()
 2) 학생의 적성을 참조한다. ()
 3) 학과의 장래성을 주로 참조한다. ()
 4) 학부모의 요청을 주로 참조한다. ()
 5) 사회와 인류 공헌 여부를 참조한다. ()
 6) 졸업 후 취업전망의 여부를 참조한다. ()
 7) 경제적인 여건을 참조한다. ()
 8) 해외진출성 여부를 참조한다. ()
 9) 기 타 ()
3. 선생님께서는 물리치료과 졸업 후 학생들의 취업 방향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모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1) 예 () 2) 아니오 ()
- 나)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1) 종합병원에 취업 ()
 2) 병원 및 의원에 취업 ()
 3) 교육기관(재활원 및 특수학교)에 취업 ()
 4) 스포츠 물리치료분야에 취업 ()

- 5) 침구사로 취업()
- 6) 한의원에 취업()
- 7) 건강관리 센터에 취업()
- 8) 해외에 취업()
- 9) 안마사로 취업()
- 10) 지압사로 취업()
- 11) 접골사로 취업()
- 12) 기 타()

4. 물리치료를 받아 보았습니까?

가) 1) 예() 2) 아니오()

나) 물리치료를 받아 보았으면 언제 받아 보았습니까?

- 1) 국민학교 시절() 2) 중학교 시절()
- 3) 고등학교 시절() 4) 대학교 시절()

다) 물리치료를 받아 본 후 치료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라) 불만족일 경우 그 이유는?

- 1) 치료효과가 너무 늦게 나타난다.()
- 2) 물리치료의 효과가 거의 없다.()
- 3) 물리치료가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다.()
- 4) 물리치료가 교양이 없고 불친절하다.()
- 5) 기 타()

5.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물리치료사상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항목 하나에만 ●표 해 주십시오.)

- 1) 친절하고 봉사하는 물리치료사()
- 2) 사무적이고 능률적인 물리치료사()
- 3) 교양과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물리치료사()
- 4) 직업인으로서의 윤리관이 투철한 물리치료사()

6. 외상을 받았을 때 환자에게 물리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1) 필요() 2) 불필요()

나)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 1) 물리치료의 효과는 있지만 정기적인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 2) 물리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 3) 물리치료 이외의 다른 치료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 4) 기 타()

III.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

1. 물리치료사의 직무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가) 1) 예() 2) 아니오()
- 나)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1) 의사의 보조사로서()
 - 2) 맛사지를 주로하는 안마사로서()
 - 3) 지압을 주로하는 지압사로서()
 - 4)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사로서()
 - 5) 테이핑을 주로하는 운동트레이너로서()
 - 6) 접골사의 보조사로서()
 - 7) 기 타()

2. 물리치료사의 학력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1) 고 졸()
- 2) 전문대졸(2년제) ()
- 3) 대학졸업(4년제) ()
- 4) 보조학원 졸업()

3. 물리치료사의 사회적인 수준(지위)에 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가) 1) 매우 좋다()
- 2) 좋 다()
- 3) 보통이다()
- 4) 나쁘다()
- 5) 매우 나쁘다()
- 나) 나쁘다면 그 이유는?
 - 1) 학력이 낮다()
 - 2) 보수가 낮다()
 - 3) 인격과 교양이 부족하다()
 - 4) 장래성이 없다()
 - 5) 기 타()